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 검증

장 수 연¹⁾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어린이집

본 연구는 유아기 가정환경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 소재 유치원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 213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과 인성은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환경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검증에서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경로에 인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Sobel 공식을 적용한 간접효과 유의성검증에서 인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가정환경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인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유아의 인성도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유아의 가정환경뿐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유아,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매개효과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어린이집, 원장 (E-mail: suyoun39@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 자살, 학업중단, 일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적역량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역량 함양이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이윤희, 201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초(61.0%)·중(53.6%)·고등학교(40.2%) 모두에서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지표가 되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한 질문에 낫다는 응답이 전체 6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성교육의 부재로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가정교육의 부재(34.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24.4%),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21.9%), 점수 위주의 입시경쟁체제(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정민, 양승실, 이선호, 김일혁, 2014). 즉, 우리나라 국민은 학교교육에서 지금보다 인성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이 가정에서의 교육부재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있어

왔으며, 이는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는 인성 및 도덕성 수준의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강조 및 지원하고, 이를 유아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2015)에 따라 유치원 및 전국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의 통합적 실천능력, 즉 인성핵심역량을 육성함으로써 전인발달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전인발달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 프로그램'(2010)과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2011)을 활용하여 실천적·경험적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2012)을 제공하고, 부모를 대상

으로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집’(2012)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통하여 인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로 유아 때부터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바른 인성을 가지면 동정심이 있고, 정직하고 공평하며, 자기조절을 잘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보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좋은 시민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지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이러한 인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보다는 비형식적, 일상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데, 유아기 비형식적,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가정으로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며,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홍순옥, 2001). 유아기 가정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은 모든 연령의 발달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유아기발달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rden & Whittaker, 2011). 예를 들면, 유아기 가정환경은 미래의 발달경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후 발달에 장기적이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

지, 학문, 그리고 행동수행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김혜경, 조성연, 2002; 이지연, 박금주, 2008; Bradley, 2006; Duncan, Ziol-Guest, & Kalil, 2010; Evans, 2006). 특히 유아기 가정환경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인성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Power, Nuzzi, Narvaez, Lapsley, & Hunt,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구조형태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가정 내 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원영희, 손화희, 2015), 유아기는 여전히 부모와 최초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이러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함양된 인성은 구성개념, 학문적 관점, 그리고 학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론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홍순옥, 2001; Berkowitz & Grych, 1998). 일반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심리학에서는 Persona(가면)에서 유래한 인성(personality)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비춰지는 외적 성격을 나타낼 때 사용한 용어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교육학 및 발달심리학에서는 Charakter(조각도구)에서 유래한 인성(character)을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한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박현진, 김숙자, 2012; Lickona, 1992; Power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형성을 돕고자 하

는 것이므로 교육적 관점에 따라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을 통해 함양된 인성(moral character or character)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경험과 학습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됨의 특성(character)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영례, 강선보, 정창호, 이성흠, 류은영, 이동운, 2015; Lickona, 1992). 이를 종합해보면, 인성(character)은 생득적인 부분 뿐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성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교육을 통하여 함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념적으로 창의적 인성(creative personality)을 인성(character)으로 사용하거나(김은하, 2011; 장영숙, 조정화, 2010), 생득적 측면에서 성격(personality)형성이론을 인성(character)형성이론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홍순옥, 2001), 이는 엄밀히 말하면 생득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한 즉, 인성교육을 통하여 바뀔 수 있는 인격적 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우영효, 2004)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유아기는 오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놀이를 통해 사회적 규준을 배우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규준을 따르고 내면화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자기조절능력이다(Kopp, 1982). 자기조절능력은 유아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들이 놀이시간에 친구들과 놀 때 장난

감을 함께 나눠가지고 놀고, 다시 교육이 시작되면 놀던 것을 멈추고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ronson, 2000; Galinsky, 2010).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에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로 건강한 자아존중감과 자기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Berkowitz, 1982).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하기 싫은 일도 적절한 과업이라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부적절한 일이라 판단되면 저항하거나 억제하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유아기에 자신의 생각,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후 발달단계에서 학업, 직업,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측요인이다(Blair, 2002; Galinsky, 2010).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뇌와 인지성숙단계로 영아기와 4~7세 이 두 기간 동안 생물학적으로 전두엽이 성숙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dspeth & Pribram, 1990). 또한 유전적 측면인 기질이 유아기와 학령기의 많은 자기조절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예를 들면, 행동억제, 노력이 필요한 통제, 그리고 걱정 같은 기질은 정서조절, 부정행위, 부모나 교사의 요구나 사회적 규준 따르기 같은 자기조절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조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의 환경적 측면으로 실제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기조절이 생물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즉, 부모나 교사의 외부통제에 의해 발달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내면화된다고 하였다(Rothbart, & Bates, 2006; Kopp, 1982). 예를 들면, 유아들은 모델링을 통하여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특별한 전략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그들의 행동전략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아가 부모의 요구, 사회적 기준, 결정에 수긍하면 이를 따르고 내면화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Kuczynski, Kochanska, Radke-Yarrow, & Girmius-Brown, 1987). 즉,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규칙이나 목표를 수립할 때 자녀와 함께 하는 등 양육자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면, 유아는 자발적인 자기조절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Cook & Cook, 2009; Kopp, 1987).

기존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함양된 인성을 창의적 인성(김은하, 2011; 장영숙, 조정화, 2010)과 구분하여 사용한 연구는 유아단계에서는 거의 없었으며, 인성교육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된 연구(고윤우, 2014; 김미래, 2015; 허해옥, 2002)는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인성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김혜순, 강기숙, 2005; 송효현, 정다우리, 2014)는 있었으나, 유아기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기조절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

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유아기 가정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인성개념의 정립과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조절능력 및 인성형성 및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시에 위치한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2년부터 시행을 의무화한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으로서 공교육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만3~5세 모든 영역에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인발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는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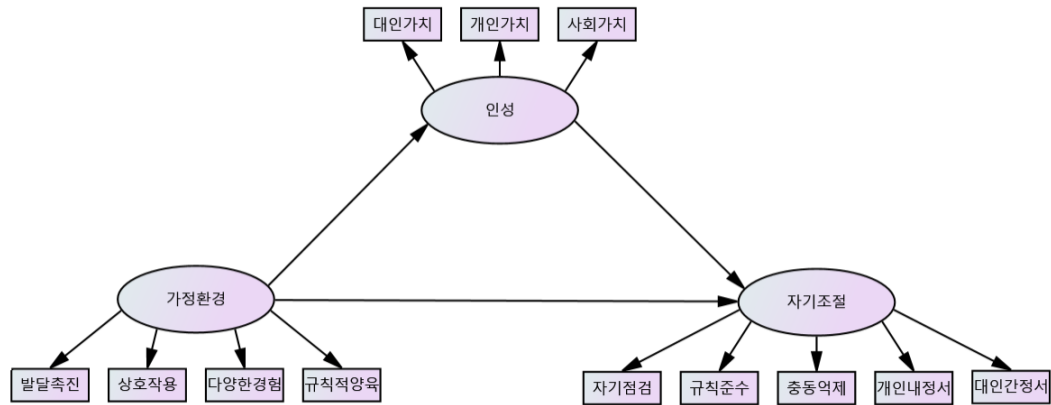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인성 매개모형

3~5세 유아 213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측정하고자 한국 실정에 맞게 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및 이순형(2012)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정 내의 아동에게 유용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지지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구체화된 가족환경측정 도구로 자녀의 지적발달을 촉진하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발달촉진환경(7문항), 평소 자녀와 상호작용 시 반응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반응적 상호작용(7문항), 자녀와 여행이나 영화관람, 야외 활동 등 여가시간에 가정 밖

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4문항), 유아가 하루 일과에 있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규칙적 양육(3문항) 등 4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인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발달촉진환경 .85, 반응적 상호작용 .83, 다양한 경험 .77, 규칙적 양육 .75,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화된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유아의 가정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유아용 인성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특성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특성을 측정하고자 나은숙과 김경희(2014)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3~5세 유아용 인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용서, 관용, 긍정적인 상황 전환, 책임감, 타인존중, 타인배려와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대인가치(10문항), 자아확립, 긍정적 생활태도, 끈기, 자기조절,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 = 213)

구분	세분류	N(%)
성별	남	114(53.5)
	여	99(46.5)
출생순위	첫째	94(44.1)
	둘째	83(39.0)
	셋째	12(5.6)
	외동	24(11.3)
	만2세	6(2.8)
연령	만3세	29(13.6)
	만4세	75(35.2)
	만5세	89(41.8)
	만6세 이상	14(6.6)
유아교육기관		
유형	유치원	124(58.2)
	어린이집	89(41.8)
경력	1년 미만	16(7.5)
	1~3년 미만	36(16.9)
	3~5년 미만	89(41.8)
	5년 이상	72(33.8)
학력	전문대학	182(85.4)
	4년제 대학	28(13.2)
	기타	3(1.4)
	유아교육	189(88.8)
전공	아동보육관련	22(10.3)
	기타	2(9)
부연령	20대	2(9)
	30대	134(62.9)
	40대	73(34.3)
	50대	4(1.9)
모연령	20대	10(4.7)
	30대	167(78.4)
	40대	35(16.4)
	50대	1(5)
부학력	고졸	52(24.4)
	전문대졸	46(21.6)
	대졸	87(40.8)
	대학원졸	26(12.2)
모학력	기타	2(9)
	고졸	50(23.5)
	전문대졸	66(31.0)
	대졸	86(40.4)
	대학원졸	9(4.2)
모의 직업	기타	2(9)
	무직	90(42.3)
	노동직	3(1.4)
	기술직	6(2.8)
	사무직	29(13.6)
	자영업	15(7.0)
	관리직	2(9)
	전문직	36(16.9)
	기타	32(15.0)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가치(9문항), 친구를 돕거나 상황 및 환경에 관심을 갖는 등 주로 세계시민의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봉사, 헌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사회가치(5문항) 등 3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인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대인가치 .80, 개인가치 .83, 사회가치 .74, 전체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담임교사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부모가 유아의 인성을 측정할 경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를 통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담임교사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유아기 자기조절 평가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고려한 유아의 자기조절과 관련한 행동특성을 측정하고자 이양희와 신혜원(2005)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유아기 자기조절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의 내적규준에 따라 행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기점점(6문항), 외적 규준에 따라 행하는 사회적 규칙준수 행동의 내용이 포함된 규칙준수(5문항), 참을성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 행동의 특성이 포함된 충동억제(4문항), 환경적 자극에 대한 유아의 고유한 정서적 각성과 반응양식이 포함된 개인내 정서성(4문항),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이 반영된 대인관계 속에서의 정서적 반응양식이 포함된 대인간 정서성(3문항) 등 5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인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점점 .75,

규칙준수 .80, 충동억제 .74, 개인내 정서성 .73, 대인간 정서성 .71, 전체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측정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측정하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2015년 8월 둘째 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 50명(남 28명, 여 22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 전에 임의표집한 대전지역 유치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4곳에 배부하였다.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유치원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부모님께서는 부모상담, 가정통신문 및 알림장을 통하여 본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알려드린 후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우편으로 8월 24일 300부를 보낸 후 9월 19일 250부(83%)를 수거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패턴화되어 있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213부(71%)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성이 가정환경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mediating effects) 검증의 추가분석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공식¹⁾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TLI, CFI, RMSEA를 사용한 이유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으며, 간명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적합도의 평가기준은 NNFI와 CF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1) Sobel(1982)공식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간의 관계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에서 적정한 값(왜도 <2, 첨도 <7)이 나타났으므로 정상성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bootstrapping을 사용하지 않았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가정환경변인과 인성변인 간의 관련성은 .21~.4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

며,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는 개인 내 정서를 제외하고 .14~.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인성과 자기조절 간의 관련성에서도 충동억제와 개인 내 정서를 제외하고 .19~.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충동억제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내 정서는 개인가치와 가정환경의 모든 측정변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유아의 가정환경과 인성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환경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을 설명

표 2.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213)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발달촉진환경	1.29	5.00	4.01	.63	-.89	1.71
상호작용	2.29	5.00	3.58	.50	.41	-.07
다양한경험	2.00	5.00	4.01	.69	-.47	-.20
규칙적양육	1.00	5.00	3.66	.75	-.26	.12
대인가치	2.20	4.80	3.38	.45	.18	.45
개인가치	1.89	4.89	3.31	.51	-.04	.20
사회가치	1.80	5.00	3.43	.58	-.19	.24
자기점검	2.50	5.00	3.76	.48	.09	-.30
규칙준수	2.40	5.00	3.73	.57	.13	-.16
충동억제	1.75	5.00	3.66	.66	-.24	.03
개인내정서	1.00	4.75	2.79	.65	-.11	.68
대인간정서	2.33	5.00	3.97	.57	-.13	-.13

표 3.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N = 213)

구분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발달촉진환경	상호작용	다양한경험	규칙적양육	대인가치	개인가치	사회가치	자기점검	규칙준수	충동억제	개인내정서
상호작용	.50**										
다양한경험	.60**	.49**									
규칙적양육	.42**	.34**	.48**								
대인가치	.22**	.37**	.21**	.22**							
개인가치	.45**	.48**	.37**	.27**	.55**						
사회가치	.40**	.47**	.38**	.27**	.30**	.51**					
자기점검	.52**	.51**	.48**	.41**	.53**	.65**	.44**				
규칙준수	.47**	.45**	.43**	.46**	.50**	.57**	.36**	.72**			
충동억제	.14*	.08	.14*	.21**	.47**	.28**	.11	.38**	.38**		
개인내정서	-.06	.11	.00	-.08	-.17*	-.04	.19**	-.06	-.06	-.47**	
대인간정서	.35**	.46**	.38**	.19**	.37**	.37**	.43**	.51**	.46**	.24**	.03

* $p < .05$. ** $p < .001$.

표 4. 유아의 가정환경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N = 213)

모형	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t	R	R ²	F
		B	SE	β				
a	(상수)	1.68	.18		9.23**			
	가정환경	.45	.05	.55	9.44**	.30	.29	89.15**

** $p < .001$.

하는 정도는 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가정환경이 인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29%로 나타났으며, 인성이 자기조절을 설명하는 정도는 4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아의 가정환경과 인성이 자기조절을 설명하는 정도는 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

과를 기반으로 매개효과의 유무 및 매개효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부분매개모형이라고 하고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

표 5.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N = 213$)

모형	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t	R	R^2	F
		B	SE	β				
c	(상수)	2.09	.15		9.23**			
	가정환경	.39	.04	.57	9.44**	.33	.32	101.46**
b	(상수)	1.66	.14		11.47**			
	인성	.57	.04	.68	13.42**	.46	.46	180.03**
	(인성)	1.35	.15		9.01**			
c'	가정환경	.20	.04	.29	4.98**	.52	.51	112.54**
	인성	.44	.05	.52	9.15**			

** $p < .001$.

개모형이라고 하는데(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의 결과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유아의 가정환경이 인성을 거쳐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매개효과유형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연구모형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완전매개 혹은 부분매개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 및 과대평가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지성호, 강영순, 2014).

Kenny(2015)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효과검증이 4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c),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며(a),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해야 한다(b)고 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을 유의하게 설명한다(c')면 부분매개효과이며,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완전매개효과가 된다고 하였다. 즉,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4단계 기준에 따라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 p < .001$). 둘째, 유아의 가정환경이 유아의 인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55, p < .001$). 셋째, 유아의 인성이 자기조절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8, p < .001$). 마지막으로 유아의 가정환경과 인성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기 가정환경의 β 값이 .29로 인성의 자기조절에 대한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대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추가분석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사용하며, 여기엔 Sobel, Goodman, Aroian, Bootstrapping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obel(1982)공식을 적용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환경이 인성으로 향하는 경로추정치는 a로, 인성이 자기조절로 향하는

경로추정치는 b로, 그리고 a의 표준오차는 s_a 로, b의 표준오차는 s_b 로 하여 검증한 결과, $Z = 7.99^{**}$ ($S.E. = 0.03,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아서, 가정환경이 인성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55, p < .001$), 인성이 자기조절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 = .68, p < .001$)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이 자기조절로 가는 경로를 통제된 상황에서 가정환경이 자기조절로 가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β 값이 .57로 직접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가 .96, CFI가 .97, RMSEA도 .06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부분매개모형과 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변수 간 경로	B	β	S.E.	C.R.
가정환경 → 인성	.45	.55	.08	5.59 ^{**}
인성 → 자기조절	.57	.68	.14	6.73 ^{**}
가정환경 → 자기조절	.39	.57	.09	3.58 ^{**}

^{**} $p < .001$.

표 7.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76.78 [*]	45	.02	.96	.97	.06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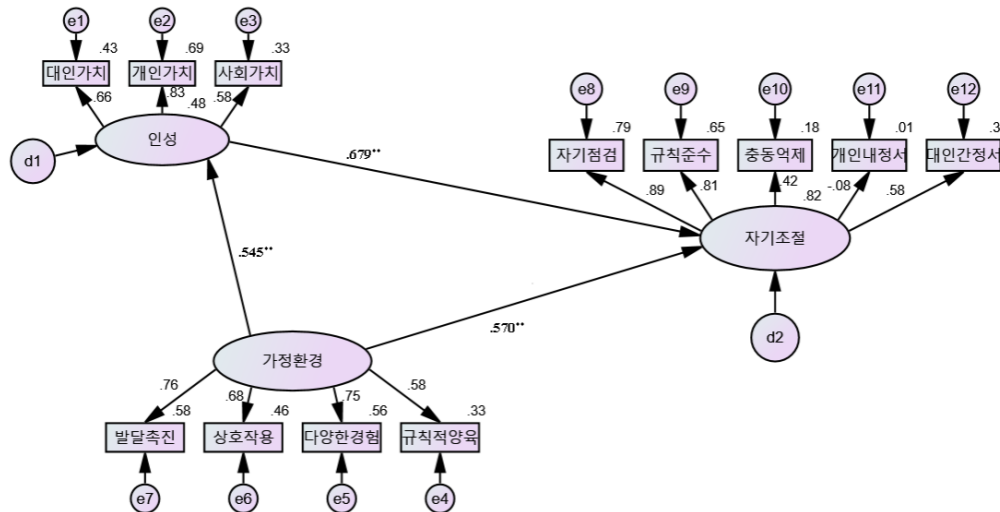


그림 2. 유아 인성의 부분매개모형과 매개효과크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가정환경, 인성, 자기조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가정환경과 인성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인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무 및 매개효과유형을 먼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성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를 두 번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에 논의한 바와 같다.

첫째,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의 모든 하위변인(발달촉진, 상호작용, 다양한 경험, 규칙적 양육)은 자기조절의 개인 내 정서변인을 제외한 자기점검, 규칙준수, 충동억제, 대인 간 정서에서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가정환경변인은 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발달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리진, 정옥분, 2012; 김혜순, 강기숙, 2005; 송효현, 정다우리, 2014; Cook, & Cook, 2009; Kopp, 1987; Kuczynski et al., 1987; Rothbart, & Bates, 2006)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특성, 역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가정환경은 유아의 자기조절발달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특성이 합리적, 수용적, 온정적일수록, 부모-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규칙적이고 일관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위한 부모교육 뿐 아니라 부모가 될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기 가정환경과 유아의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정환경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인성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기 가정환경과 유아의 인성형성 및 수준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김형재, 구성수, 이경철, 2015; 장영숙, 조정화, 2010; 하주현, 박은희, 2013)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율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양육특성을 나타내는 가정환경일수록,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독립심을 자극하는 반면 가족의 압력을 최소화 할수록 자녀의 인성발달이 촉진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교육의 기본인 가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성은 유아의 지적, 성격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인성과 나쁜 인성의 특징으로 구성되며, 좋은 인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습득된다. 이러한 인성의 발달은 가족을 통해 다양한 비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촉진된다(Lickona, 1992; Power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환경은 비형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유아기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Berkowitz & Grych, 1998)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정교육을 중시해왔으며, 이 가정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인성교육이었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가치덕목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천위주의 교육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우리문화에 맞는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인성 교육 방법의 하나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덕목전수방법(德目傳授方法)을 소개하면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덕목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시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인간존중, 정직, 사랑, 용서, 절제, 용기, 정의감 같은 보편적인 가치덕목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수하여 내재화 시키는 방법으로 본보기, 학습, 실천을 통해 인성교육을 내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우영호, 2006). 그러므로 우리문화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유아의 인성과 자기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의 개인 내 정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성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인성과 자기조절발달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고윤우, 2014; 김미래, 2015; 허해옥, 2002; Berkowitz, 198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자기조절 발달은 대략 5~7세 사이에 자아통제력(self-control)이 발달한 후 나타나며, 도덕적 추론 및 인성발달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Berkowitz, 1982)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조절능력은 초기 형태인 자기통제능력으로부터 발달하는데, 영아기의 의도적 행위의 반복으로부터 시작되며, 이후 배변훈련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자기조절능력은 인성의 발달특성 중 하나로 유아기 정신적 표상 및 혼잣말 같은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질 때,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만족지연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Berkowitz & Grych, 1998). 또한 인성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음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운우, 2014; 김미래, 2015; 허해옥, 2002)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성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동시에 연계하여 시행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Lickona, 1992).

마지막으로 유아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가정환경이 유아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김형재, 구성수, 이경철, 2015; 장영숙, 조정화, 2010; 하주현, 박은희, 2013)과 유아의 인성이 자기조절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고운우, 2014; 김미래, 2015; 허해옥, 2002; Berkowitz, 1982; Berkowitz & Grych, 1998), 그리고 유아기 가정환경이 자기조절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혜순, 강기숙, 2005; 송효현, 정다우리, 2014; Cook, & Cook, 2009; Kopp, 1987; Kuczynski et al., 1987; Rothbart, & Bates, 2006)는 각각의 선행연구사례들을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검증한 것으로 유아기 가정환경이 유아의 인성발달과 자기조절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인성도 자기조절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유아의 가정환경이 자기조절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인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 및 증진시키는 데 가정환경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인성도 간접적 영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기조절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가정환경과 인성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하나의 연구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기 가정 내 인성교육을 통하여 형성 및 발달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인성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조절능력과 인성발달에 가정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역할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 인성발달과 자기조절발달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유아교육기관의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집에서 대전지역에 국한하여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발달에서 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인성교육과 관련한 인성의 개념을 제시한 바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고, 대상표집을 전국적 단위로 확장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운우 (2014). 협력중심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 프로그램.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 밥상머리교육.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부모상담 가이드북.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육아정책연구소.
-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리진, 정옥분 (2012).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보육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9(1), 89-104.
- 김미래 (2015). 인성교육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례, 강선보, 정창호, 이성흠, 류은영, 이동윤 (2015).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2), 21-45.
- 김은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양승실, 이선희, 김일혁 (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연구보고 RR 2014-24,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아동교육, 21(1), 77-92.
- 김형재, 구성수, 이경철 (2015).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844-1852.
- 김혜경, 조성연 (2002).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HOME)과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3-16.
- 김혜순, 강기숙 (2005).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 나은숙, 김경희 (2014). 3~5세 유아용 인성척도 개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433-452.
- 박현진, 김숙자 (2012). 유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한국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적 접근에서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아동교육, 21(2), 5-26.
- 송효현, 정다우리 (2014). 이혼 해체 부-자녀가정과 양부모가정 간 아버지 역할수행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기조절의 차이. 한국교육 · 보육행정연구, 18(2), 35-58.
- 우영효 (2004).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 아동교육, 13(1), 147-158.
- 우영효 (2006). 이덕무의 「사소절」에 나타난 인성교육 분석. 아동교육, 15(1), 109-121.
- 원영희, 손화희 (2015). 가족복지론. 학지사.
- 이양희, 신혜원 (2005). 유아기 자기조절 평가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9(1), 1-21.
- 이윤희 (2013). 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 도덕성, 사회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박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2015). 대통령령 제 26403호, 2015년 7월 20일 제정, 2015년 7월 21일 시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120&efYd=20150721#0000>에서 2016년 3월 2일 인출.
- 장영숙, 조정화 (2010). 부모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6(2), 309-336.
- 지성호, 강영순 (2014). 사회과학분야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매개효과검정방법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3121-3131.
- 하주현, 박은희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3(3), 123-144.
- 허해옥 (2002). 컴퓨터주제 인성교육프로젝트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순옥 (2001). 유아의 인성과 가정환경. *인문과학논총*, 4, 219-23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owitz, M. W. (1982). Self-control develop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A response to peterson. *Merill-Palmer Quarterly*, 28(2), 223-236.
- Berkowitz, M. W., & Grych, J. H. (1998). Fostering goodness: Teaching parents to facilitate children'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3), 371-391.
-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2), 111-127.
- Bradley, R. H. (2006). Home environment. In N. Watt, C. Ayoub, R. Bradley, J. Puma, & W. LeBoeuf (Eds.), *The crisis in youth mental health: Critical issues and effective programs.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nd Policies*, Vol. 4 (pp. 89-120). Westport: Praeger.
- Bronson, M. B. (2000).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5(2), 32-3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ok, J. L., & Cook, G. L. (2009). *Child development: Principles and perspectives*. Pearson A&B.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uncan, G., Ziol-Guest, K., & Kalil, A. (2010).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 Evans, G. (2006). Child developmen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23-451.
- Galinsky, E. (2010). *Mind in the making: The seven essential life skills every child needs*. NAEYC special ed. New York: Harper Collins.
- Harden, B. J., & Whittaker, J. V. (2011). The early home environment and developmental outcomes for young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system.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8), 1392-1403.
- Hudspeth, W. J., & Pribram, K. H. (1990). Stages of brain and cognitive matur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881-884.
- Kenny, D. A. (2015, December 30). *Mediation*. Retrieved January 6, 2016, from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BK>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 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1.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opp, C. B. (1987). The growth of self-regulation: Caregivers and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35-52). NY: Wiley.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6), 799-806.
- Lickona, T. (1992). *Educating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 Power, F. C., Nuzzi, R. J., Narvaez, D., Lapsley, D. K., & Hunt, T. C. (2008). *Moral Education: A handbook, volume 1, A-L*. Wexport: Praeger Publishers.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 R. M.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Hoboken, NJ: Wiley.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 차원고접수 : 2016.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2.

The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Chang, Su-Youn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Child-c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mothers and teachers of children aged from three to five in kindergartens and public child-care centers in Daejeon, Korea. Th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correlation among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character, and self-regulation. The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influenced self-regulation through the character of young children. Also the early childhood home environment influenced self-regulation. The Sobel formula also indicated that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character. Thus, characte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nvironment and self-regula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young children's characters, along with their home environments, sugges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and improving competence in relation to early childhood self-regulation.

Keywords: young children, home environment, character, self-regulation, mediating effects